

일주문

현성 스님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10월 3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2500명 수계법회를 열었다.

세민 스님 **대중공양**
 서울 수안사 주지 세민 스님은 11월 3일 72세 생일을 맞아 지역의 불우 어르신 100여 명에게 대중공양을 했다.

동화사 **대구교도소 수계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25일 대구교도소 내 광명사에서 108명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정목 스님 **초청법회**
 정목원 원장 정목 스님은 11월 2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대승불교의 신행 체계와 열불수행'을 주제로 법회를 개최한다.

금산사 **성보박물관 개관**
 전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11월 2일 금산사 성보박물관을 개관하고 특별전시회를 실시했다.

만화대종사 **추모 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11월 30일 만화대종사 제28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한다. (033)339-6600

조계사 **동안거 기도 입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1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월 6일까지 동안거 기도에 입재한다. (02)732-2115

제3회 **일연삼국유사 학술제**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11월 25일 대구교육청 대강당에서 제3회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및 문학제를 개최한다. (054)383-1161

〈인사〉동국대, 하북동 사회과학대 석좌교수 임명

하북동 前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0월 7일자로 동국대 사회과학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하 석좌교수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감사원장 직무대행,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불교문학 발전해야 포교된다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

“작금의 불교계가 내부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이때 우리 한국불교문인협회가 불교를 중흥시키는 데 버팀목이 돼야 합니다.”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장은 11월 2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 포교를 위한 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선진규 회장은 “지난 7월에 취임한 이후 협회에서 처음으로 여는 큰 행사”라며 “불교 포교에 있어 문학의 효용성을 심분 이해하고 올바른 종교활동을 제시하며 인간의 삶 자체를 불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국민인성 함양에 불교문학이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한국불교문인협회는 매년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인협회는 문학을 하는 지성인들의 모임으로 1985년 8월 15일 창립된 이래

26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입각해 불법을 전해 온 단체이다.

불교포교사로서 봉화산 정도원과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던 선진규 회장은 한국불교문인협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선 회장은 “현재 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620명인데 지속적으로 불교 문인들을 발굴해 불교를 소재로 글을 쓰자 하는 지성인들의 집합체로 협회를 키우고 싶다”며 “연 1회씩 발간해 오던 〈한국불교문학〉도 내년부터는 계간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회장은 또 통불교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불교문인협회는 불교 믿음을 근간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특정종파나 나아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우리 불교를 폄하하지 않는 문



인이면 누구나 받아들여 포용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은 11월 11일 오후 3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다. 김동률 송실대학교 강사가 사회자로 나서며, 홍윤기 석좌교수(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조병무 명예교수(동덕여자대학교)가 ‘불교 포교를 위한 문학의 역할’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 는 김기원 前 전주대학교 교수와 오대학 교수(동

국대)가 나선다.

이어서 정병조 금강불교대학교 총장,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불교포교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가 열린다.

선진규 회장은 “심포지엄에 꼭 참석해 함께 토론하고 담보상태의 한국불교문학 발전에 조연과 더불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계간 잡지로 등록된 〈한국불교문학〉지에서는 한국문단의 새로운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의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 부문은 시(5편 이상), 수필(3편 이상), 평론(1편), 희곡·소설(1편) 등이며 한국불교문인협회 또는 한국불교문학 편집실로 우편접수(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 서원빌딩 4층)하면 된다. (02)336-4907

이너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불교, 소수종교 돼 간다”

11월 리더스 포럼 김동건 대표 특강



김동건 참여불교재단대 상임대표(사진)가 갈수록 기독교화 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11월 1일 만해 NGO교육관에서 열린 ‘11월 참여불교 리더스 포럼’에 참여해 ‘불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한국 기독교가 공격적 포교를 하고 있어 불교가 소수 종교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동건 대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무상과 무아를 말씀하셨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불교가 영

불 등 의례의 한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도 짧은 역사의 한국 기독교보다 늦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대승불교의 특징인 참여불교가 정작 대승불교관에서는 약한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김동건 대표는 새로 구성될 집행부와 회원들이 재가연대 발전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건 대표는 “내년 3월 경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많이 도와 달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창립 5주년 맞은 대불총 회장 박희도 장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약칭 대불총)이 11월 2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불총은 2006년 10월 연합사해제 및 북한 핵실험 등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다지기 위한 불자들의 호국·호법의 결사체로 출범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불총은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일념 하에 호국호법을 목표로 국가와 불교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6개 시·도지회와 5000여 회원 그리고 협력단체와 우호불교단체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회장은 “불교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종교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호국우국단체로서 대불총이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펴야 한다”며 “4대



강 사업을 비롯한 국가적, 불교적 과제에서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불총 지회회원과 특전전우회, 어버이연합, 자유대한탈북자 등 보존단체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후에는 전교조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조성택 교수,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54)가 불교 계간 학술지 〈불교평론〉이 수여하는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 민족주의적 역사기술에 관한 비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53호 게재)이다.

불교평론은 불교학 진흥과 연구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불교 관련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상금은 500만 원이다.

올해의 논문상 심사위원회는 “조 교수의 논문은 일본 불교를 모델로 근대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족주의와 결합해 제국주의의 폭력적 확립성에 맞서야 했던 조선 불교의 이중적 상황을 새로운 시대상에 걸맞는 불교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고민으로 확장시켰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예상치 못한 수상 소식에 마음의 빛이 무겁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노작(勞作)을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평론 시상식은 12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은정불교, ‘올해의 학술상’

한지연 HK연구교수, ‘서역불교교류사’ 선정

인도와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에 위치하며 동아시아 불교 전래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서역 불교 연구서가 출간됐다.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의 지원을 받아 〈서역불교 교류사〉를 펴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한 연구교수가 한국에서는 미개척 연구분야인 서역불교를 연구자료를 적은 가운데에서도 전면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높이 사 2011년 학술상 대상자로 선정, 1000만원의 연구비와 논문 발간비를 지원했다.

한지연 연구교수는 “중국 불교사와 각종 고승전을 접



하며 등장인물의 80% 이상이 서역에서 온 승려들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서역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구교수는 “책에서는 실크로드 루트 상의 오아시스 국가를 위주로 교리사·문화사적 내용을 다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어떠한 법당에도 웅장하고, 깨끗한 소리를 보장 해 주는 고급 음향설비 SYSTEM...

YK-308 씨리즈 (10평~50평 법당용)

가격 : ₩ 2,470,000원



YK-308 씨리즈 구성도

품명	모델, 규격	수량	품명	모델, 규격	수량
①스피커	YM-520 200W	1조	⑦핸드마이크	V-606LC	1개
②메인앰프	300 AN 300W	1대	⑧마이크믹서	5CH용	1개
③CD 플레이어	ICDC-8305 CD5개	1대	⑨마이크스탠드	사회자용 고급	1개
④더블캐셋	IDD-8302 고속복사	1대	⑩고급마이크선	214S SOULFUL	1대
⑤무선핀마이크	P-201+헤드셋	1set	⑪고급 스피커선	무선실선 50×2C	1대
⑥스탠드마이크	DX-707	1대			

• 설치비 포함 : 2,470,000 원

※ 외부 고급 스피커 추가 설치시 1개당 150,000원 추가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2월 31일까지 YK-308 씨리즈를 설치하는 사찰에는 무선 마이크를 무료 보시 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